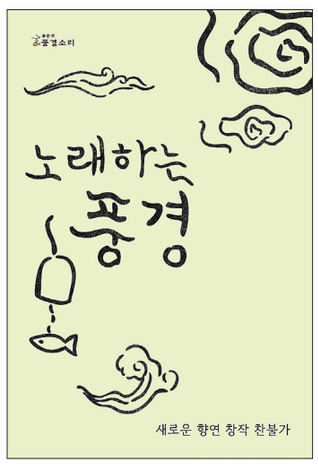
‘讚佛藝人’ 이종만이 돌아왔다

〈찬불예인〉

풍경소리 ‘노래하는 풍경’ 발매
작년 여름 ‘60집’으로 1차 회향
이후 전국 스님들 격려 이어져
트로트 찬불가 선보이며 리뉴얼
“폭넓은 장르로 찬불가 대중화”



새로 리뉴얼해 발매한 풍경소리의 창작 찬불가 앨범 ‘노래하는 풍경’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지난해 여름 ‘풍경소리 60집’으로 회향했던 ‘찬불예인(讚佛藝人)’ 이종만 좋은벗 풍경소리 대표〈사진〉가 새로운 찬불가 앨범을 들고 돌아왔다.

좋은벗 풍경소리(이하 풍경소리)는 “2026년 병오년 새해를 맞이해 새로운 프로젝트 창작 찬불가 앨범 ‘노래하는 풍경’을 발표한다”고 1월 12일 밝혔다.

풍경소리는 1995년 매년 여름과 겨울 창작 어린이 찬불가 음반을 발매해 왔다. 본래 재정난으로 10집까지 발매하려고 했으나 스님과 불자들의 도움으로 위기를 극복했다. 하지만 지난해 여름 풍경소리 창립 30주년을 맞아 ‘회향’을 발표하고 마지막 앨범인 ‘풍경소리 60집’을 선보였다. 풍경소리 음반을 통해 세상에 소개된 찬불동요, 찬불가만 700여 곡에 이르며, 이는 단일 음반 중에는 한국 최대 수준이다.



이 대표의 회향은 창작 찬불가를 제작·보급할 사람과 단체가 없어졌음을 의미했다. 이를 안타까워한 것은 누구보다 전국의 스님들이었다. 회향 소식이 알려지자 스님들이 이 대표를 찾았고 격려와 지원을 이어 갔다. 조계종 포교부도 창작 찬불가 앨범을 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이 대표는 “지난해 9월 대구에서 ‘덕신 스님 헌정 음악회’를 개최하는 등 활동을 이어 가며 틈틈이 인연됐던 스님들에게 인사했는데 많은 격려를 해 주셨다”면서 “종단에서도 창작 찬불가에 지원과 관심을 줘 지난해 11월부터 새로운 찬불가 앨범을 준비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풍경소리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이번 앨범은 전국 사찰합창단들이 부를 수 있는 노래부터 트로트까지 장르의 폭이 넓다.

불교합창단이 좋아할 만한 교과서적인 노래로는 ‘관세음을 부르리(덕신 스님 작사·서근영 작곡·영화중창단 노래)’, ‘와불친견(고산 최동호 작사·이종만 작곡·유훈석 노래)’ 등을 꼽을 수 있다. 수좌이자 염불행자이면서 찬불가 작사가이기도 한 함현 스님은 ‘나는 행복한 사람이네(작곡 이종만·유현주 노래)’를 선보였다. 어린이·청소년 포교의 일등 공신인 최미선 사단법인 동련 사무국장은 어린이 찬불가 ‘우리가 부르는 노래’, ‘가을 나들이’ 등을 작사 작곡하고 부산 관음사 선혜단이슬합창단과 직접 녹음작업에 참여해 의미가 깊다.

이와 함께 찬불가 대중화에 역점을 둔 ‘마음속 작은 빛(정유탁 작사·작곡)’과 트로트 찬불가 ‘실타래 인생(차영화 작사·이종만 작곡·나현아 노래)’도 앨범에 수록됐다.

이종만 대표는 “‘풍경소리 60집’으로 찬불가 운동 30년을 회향하며 일단락을 지었다”면서 “새로 리뉴얼된 ‘노래하는 풍경’은 지난 ‘풍경소리’의 전통을 계승하며 폭 넓은 장르를 개발해 찬불가 대중화를 이끌 것”이라고 자신했다.



사진집 ‘사찰음식-시선’에 담긴 발우공양 준비하는 모습.

사찰음식 면면들 렌즈에 담다

문화사업단, 사진집 ‘사찰음식-시선’ 발간

국가무형유산 지정 기념 제작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된 ‘사찰음식’의 면면들을 렌즈에 담아낸 사진집이 발간됐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일화 스님, 이하 문화사업단)은 “지난해 12월 31일 불교문화사진집 〈사찰음식-시선〉을 발행했다”고 밝혔다.

‘사찰음식’은 불교의 정신을 담아 사찰에서 전승해 온 음식문화로, 승가의 일상 수행식과 발우공양으로 대표되는 전통적인 식사법을 포괄한다. 사찰마다 다양한 음식이 전해지지만 공통적으로 불교 사상에 기초하여 육류, 생선, 오신채(마늘·파·부추·달래·흥거)를 사용하지 않고 채식을 중심으로 한다는 특징이 있다.

문화사업단은 이 같은 문화적 가치가 지난해 5월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된 것을 계기로 사찰음식의 현장성과 정신적 메시지를 사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사진집을 기획·제작했다.

불교문화사진집 〈사찰음식-시선〉은 통도사, 송광사, 봉암사, 운문사, 청암사, 대원사에서 △발우공양 △전통공양간 △울력 △마지 △장독대 등의 현장을 렌즈에 담아냈다.



문화사업단이 발간한 불교문화사진집 ‘사찰음식-시선’.

해당 사진집은 향후 관련 콘텐츠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며, 상업적 유통이 아닌 공공 목적의 기록물로 사용된다.

문화사업단장 일화 스님은 “사찰음식이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된 것은 사찰 공동체가 오랜 시간 축적해 온 생활문화의 가치가 공적으로 확인된 의미”라며 “이번 사진집은 판매용이 아니라 기록과 교육, 확산 등을 위한 비매품 자료로서 전통문화의 현장성을 보다 정확히 전달하는 데 집중했다”고 말했다. 신중일 기자



법인 스님의 **문자반야**

온전한 인격을 지향하는 가르침

㉖ 원만구족(圓滿具足)

圓滿具足

평소 언행이 모나지 않고 자신을 내세우지 않으며 이웃과 갈등 없이 지내는 사람을 우리는 ‘원만한 사람’이라 부른다. 그러나 불교에서 말하는 ‘원만’은 이러한 일상적 의미와는 다르다. 수행을 통해 지혜·자비·복덕을 두루 갖추어 완성이 극에 이른 상태를 가리킨다. 여기에 ‘구족(具足)’이라는 말을 덧붙이는 것은, 그 완성이 우연이 아니라 반드시 충족되어야 할 조건들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부처님과 가르침, 그리고 수행공동체 승가인 불·법·승 삼보에 귀의함에 있어 첫째는 귀의불 양족존(歸依佛兩足尊)이다. 이는 지혜와 복덕이라는 두 덕목을 온전히 갖추신 부처님을 믿고 따르겠다는 서원이다. 그러나 부처님의 원만구족함이 어찌 지혜와 복덕에만 한정되겠는가. 고요·청정·평온·기쁨의 열반을 성취하신 부처님은 중생을 향한 연민과 자애가 충만한 분이다. 중생의 마음과 삶을 정확히 통찰하여 적절한 처방을 제시하셨고, 승가를 법의 정신에 따라 이끄셨다. 나아가 계급·신분·성별에 따른 차별과 억압을 부정하며 평등과 자애의 세상을 지향하셨다. 부처님을 부르는 열 가지 명호와 삼명(三明), 육통(六通)의 신통력은 그분이 원만구족자임을 분명히 드러낸다.

‘원만’이란 전인적인 삶을 실현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필수 조건들의 충족을 뜻한다. 연기론에 따르면 개별과 전체는 결코 분리될 수 없다. 예컨대 열반을 이루기 위해서는 계율·선정·통찰지라는 삼학이 함께 갖추어져야 하며, 통찰지의 성숙 역시 계율과 마음의 집중을 바탕으로 한다. 팔정도는 여덟 가지 수행 항목으로, 육바라밀은 여섯 가지 실천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이는 단순한 나열이 아니다. 바른 견해가 결여된 사유와 언어는 완전성에 이를 수 없고, 참된 보시의 정신 또한 자기 질서를 세우는 지계 수행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온전해진다.

칸트는 〈순수이성비판〉에서 “내용 없는 사유는 공허하고,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적이다”라고 말했다. 공자 역시 〈논어〉 ‘학이’편에서 “배우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어리석어지고, 생각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위태로워진다”라고 했다. 이는 모두 사유와 수행이 한쪽으로 치우칠 때 생겨나는 경직과 편협의 위험을 경계한 말이다.

오늘날 불자들의 신행을 돌아보면 아쉬움이 남는다. 명상에만 몰두한 나머지 주체적 사유와 인문적 성찰, 사회 공동체에 대한 관심을 소홀히 하는 모습도 적지 않다. 원만구족은 재능과 기능에서 만능이 되라는 뜻이 아니다. 온전한 삶을 위해 갖추어야 할 덕목들이다. 삼학·사성제·팔정도·사무량심, 그리고 세간과 출세간의 이제(二諦)가 여러 항목으로 구성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왜 부처님은 ‘각기 다른 꽃들의 어울림’에 주목하여 경전의 이름을 〈화엄경(華嚴經)〉이라 하셨을까. 곰곰이 되새겨 보면, 그 뜻은 분명해진다.

〈화순 불암사 주지〉

2026년도 불이상 수상자 추천 공고

연구 · 실천 부문…오는 2월 6일까지 접수

한국불교 중흥과 발전을 이끄는 인재를 발굴·격려하기 위한 제41회 불이상(不二賞) 수상자 접수가 시작됐다.

불이상위원회는 2026년도 불이상 수상 후보자 추천 공모 요강을 발표했다. 접수 분야는 연구 부문과 실천 부문이며 각 부문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함께 상금 2000만 원이 수여된다.

추천 접수는 타천 방식이며 개인 및 기관의 자천은 허용되지 않는다. 접수 기한은 오는 2월 6일까지며 이메일로 접수받는다. 공모양식은 접수처 이메일(burisince1986@gmail.com)로 요청하면 된다.

한편, 불이상은 불교학 연구와 사회 실천 현장에서 묵묵히 성과를 쌓아 온 인재를 발굴·격려하기 위해 제정됐다.

신중일 기자



연기를 보면 곧 진리를 본 것이다!
쫑카빠의 연기찬 주석
쫑카빠는 불교의 가장 기본 사상인 ‘연기’를 52개의 간략한 게송으로 보여주고, 여기에 짱캬 롤빼돌제가 주석을, 역주자가 알기 쉬운 설명을 붙였다.
쫑카빠 게송, 짱캬 롤빼돌제 주석, 정성준 옮김/신국판/316쪽/값 20,000원

대승의 기원을 다룬 기념비적인 책!
불교와 에크리튀르
서양 인문학의 첨단 이론을 과감하게 접목하여, 대승불교의 역사를 사상사뿐 아니라 사회사의 관점에서 혁신적으로 재해석하는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시모다 마사히로 지음, 박현진 옮김/신국판/480쪽/값 28,000원

불교사상과 최신 생물학의 연관성을 탐구!
다르마와 DNA
저명한 진화생물학자인 저자가 DNA라는 구체적 실험 대상을 통해 불교의 명제를 과학적으로 검증하여, 불교 사상의 원리와 논리의 타당성을 뒷받침한다.
디 덴버 지음, 이동수 옮김/신국판/360쪽/값 24,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